

중앙정부와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진안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과 상생협력 업무협약식 개최

진안군이 중앙정부와 손잡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에 본격 나섰다.

군은 지난달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과 함께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29일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와 8월 7일 새 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지방 상생소비 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간 전략적 연대가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식에는 민기 국무총리비서실장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총무과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명절 선물 및 기념품 구매 시 지역특산물 적극 활용, △휴가철·지역축제 기간 중 공무원 및 직원의 지역 방문 확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및 홍보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천 과제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진안군은 △지역축제, 문화관광명소, 숙박시설, 지역특산물 현황 등 다양한 지역정보 제공, △국무조정실·국무총



진안군은 지난달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과 함께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리비서실과의 교류 확대를 위한 지원 노력 강화 등 중앙부처의 지역 방문 및 소비 확대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진안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앙 정부와 함께하는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지역 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되는 민생 지원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 진안군의 상생 협력 의지에 공감하고 함께해 주신 것은 큰 힘

이자 희망"이라며 "비수도권 지자체와의 상생 자매결연을 선도해 온 진안군이 앞으로도 성공적인 지방 살리기 모델로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군은 향후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과 연계한 지역특산물 판촉, 현장 체험형 방문 프로그램, 지역축제 활성화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만들어 갈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서 족구 최강자 결승전 진행

족구코리아 디비전 J1리그 플레이오프 열려

'2025년 족구코리아 디비전 J1리그' 플레이오프가 지난달 29일과 30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내린과 선수, 대회 관계자 등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2025년 족구코리아 디비전 J1리그'는 대한민국족구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후원한 가운데 7월 5일부터 8주간 진행됐다.



'2025년 족구코리아 디비전 J1리그' 플레이오프가 지난달 29일과 30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고 있다.

무주군,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 나서

안전 사용 이론·실습 등 안내

무주군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지역 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굴삭기)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내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농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주군은 농업기계 운용 기술 습득을 위한 실습 및 안전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에게만 굴삭기 임대 자격을 부여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교육에 참여한 농업인 41명은 △농업기계 안전 사용 이론, △안전 운전 조작 실습, △상·하차 실습 교육 등을 받았다.

농업인들은 "안전모 착용 등 기본부터 철저히 교육받았다"라며 "농기계 안전 수칙 준수는 나와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배운대로 잘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농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교육)외에도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통해 부족한 일손을 거둬며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잔가지 파쇄기, 동력운반차 등 농기계 78종 505대를 보유하고 있는 무주군은 올해 무주 본소(상시 운영)를 비롯한 무풍과 안성 본소(월~토요일 운영) 3곳에서 임대 사업을 진행하며 농작업을 대행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5기 장수군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회 개최

장수군은 군청 회의실에서 제5기 장수군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장수군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위원장인 최훈식 장수군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나금례 민간위원장의 진행 속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획의 2026년 세부추진계획 전반에 대한 논의와 심의가 이뤄졌다.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

역사회보장계획(2023~2026)의 4년차 실행계획으로 지역 복지환경 변화와 복지 수요,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

이번 계획 수립에서는 지난 2개월 동안 6개 관련 부서 담당자가 자료를 작성하고 장수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7개 실무부와 위원 58명이 참여해 심의·표결을 거쳐 추진 방향을 논의했으며, 국고보조사업에 제외한 자체사업 8개 추진전략·4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선정 총력

진안군의회, 대통령실·정부세종청사서 1인 시위 나서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욱)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 추가 선정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진안군의회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대통령실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진안군을 추가로 선정해 줄 것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의원들은 관련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정부에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진안군은 오랜 세월 농민의 삶이 어려 온 농촌 지역이지만, 응답답 건설로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한 지역이기도 하다. 댐 건설 과정에서 6개 읍·면, 68개 마을이 수몰되면서 약 1만 2천 명이 고향을 떠나야 했다.

이 같은 희생 위에 세워진 응답답은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는 물론 충청권·대전권에 이르기까지 생활·공업 용수를 공급하는 국가 기반시설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정작 진안군은 인구



감소와 낮은 재정자립도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동창욱 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수몰의 아픔을 극복하고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국가에 희생을 감내한 군민들에게 이제는 정당한 희생의 기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덕유산리조트 사내 봉사단체 '사랑으로 나누리'가 무주군에 2억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다. (사진=무주덕유산리조트 제공)

덕유산리조트, 사내 봉사단체 결성

'사랑으로 나누리',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 위한 나눔활동 펼쳐

2억원 상당 물품 무주군에 기탁... "무주 지역에 온기 불어넣을 것"

무주덕유산리조트(대표이사 성장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내 봉사단체 '사랑으로 나누리'(회장 현영숙)를 결성하고,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대규모 나눔 활동을 펼쳤다.

최근 무주덕유산리조트 직원들 17명은 현영숙 회장을 중심으로 봉사단체 '사랑으로 나누리'를 조직하여, 평소에도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실천해 옮기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사랑으로 나누리'는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로부터 11톤 트럭 1대분량, 시가 2억원 상당의 생활용품, 따뜻한 의류, 영양 가득한 식품 등 다양한 물품을 후원받아 이 물품들을 무주군 환인읍 군수와 군청 직원들, 각 읍·면사무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무주군에 전달하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및 소외된 이웃들에게

정성껏 전달을 당부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무주덕유산리조트 성장현 대표이사는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랑으로 나누리 현영숙 회장은 "추운 계절을 앞두고 우리의 작은 정성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랑으로 나누리'는 지속적인 봉사 활동을 통해 무주 지역에 온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건강장수공공스포츠클럽(회장 서병선) 소속 탁구팀이 제3회 전국스포츠클럽 교류전에서 일반부와 시니어부 단체전에서 모두 준우승을 차지했다.

건강장수공공스포츠클럽 탁구팀, 전국대회 준우승

장수군은 건강장수공공스포츠클럽(회장 서병선) 소속 탁구팀이 류지이 전임지도자의 지도 아래 '제3회 전국스포츠클럽 교류전'에서 일반부와 시니어부 단체전에서 모두 준우승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달 21일부터 4일간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강진군 등이 주관해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기량을 겨루는 대회로 공공스포츠클럽 간 기술 수준과 역량을 확인하는 대표

적인 교류 무대다.

탁구 시니어부 단체전은 지난해 열린 제2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이번에도 준우승을 달성하며 2회 연속 단체전 메달 획득이라는 의미 있는 기록을 이어갔다.

일반부 단체전에서도 젊은 선수들이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팀워크를 발휘해 결승 무대에 오르며 준우승을 차지, 세대 간 균형 잡힌 경기력을 보여줬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진안군은 202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사업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 대상은 4개 지구로 마령면 강정2지구(원강정마을 일원), 정천면 월평 1·2·4지구(원월평, 하초, 석정마을 일원)이다.

주민 설명회는 오는 12월 2일과 4일, 해당 소재지 마을회관에서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당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사업지구 현황, 토지소유자 동의서 및 협의회 구성, 재조사측량 경계설정 등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향후 사업에 관한 협조 사항을 일일 계획이다.

해당 지구들은 농촌지역으로써 토지의 빈번한 변동으로 지적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복합형 지적 불분합지 형태에 관련되어 온 지구들이다.

우선 토지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불규칙한 기존 경계선을 정형화해 토지의 활용 가치가 상승되고, 땅지의 문제점이 해소될 뿐 아니라 경계선 건축물 저축 해소에 따른 토지의 이용 가치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면으로 찾아가는 건강강좌·식이체험 실시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이하 '교당센터')는 지난달 27일 동향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면으로 찾아가는 건강강좌 및 식이체험'을 개최했다.

교당센터는 동향보건지소와 능금보건진료소, 학성보건진료소와 함께 고혈압·당뇨병이 있거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동향면 주민 6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운영실 국민연금관리공단 전문 강사의 '건강하게 장수하는 생활 습관'과 김진주 원광대학교 임상영양사의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올바른 식습관'을 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혈압·혈당·콜레스테롤을 측정하는 '자기 혈관 숫자 알기' 체험과 '달맞이·심검콩·골고루' 먹기 체험 도시락을 주민들과 함께 시식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장수군은 고액 지방세를 장기 간 납부하지 않은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위택스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이다.

이들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소멸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명단 공개 절차가 진행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규모, 해당 세목, 최초 납부기한 등이며, 납세자 간 형평성 제고와 성실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조치로 시행한다.

장수군은 이번 명단공개가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역 내 건전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군은 앞으로도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재산 조회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병행한다.

/장수=고관호 기자